



도, 8월 임업인에 고석준 사계절 농원 대표

전남도는 8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해남군 옥천면에서 황칠나무를 재배하는 임업인 고석준 사계절 농원 대표를 선정했다. (사진) 고 대표는 옥천면 일원 15만㎡ 부지에 시설하우스와 노지재배를 병행해 황칠나무와 동백, 후박 등 조경수를 연 6만 본 생산하고 있으며, 연 4만3000본을 관공서 등에 판매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2008년 해남군 임업후계자로 지정된 후 16년간 임업에 종사하며 (사)해남군 황칠협회에서 개발한 황토·상토 혼합비율 신기술을 황칠나무 용기묘에 적용해 우량 품질의 묘목을 생산하는데 성공했다.

고 대표는 해남 황칠 지리적표시제 등록에도 크게 기여하고, 해남군조경수생산자협회 사무국장과 해남군황칠협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신규 임업인에게 정보와 기술을 공유하는 등 임업소득에 앞장서 지난해 전남도 농업인대상(임업분야)을 수상했다.

고 대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황칠, 후박 등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난대 상록활엽수의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남 황칠이 지역 대표브랜드를 가진 산림소득 수종이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빛고을노인건강타운-광주청년센터 MOU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은 광주청년센터와 지난 2일, 빛고을타운 회의실에서 세대 간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4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협약식에서 △ 상호 인프라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세대 간 네트워크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체계구축 및 상호 협조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주를 위한 일 경험 등 다양한 서비스 및 지원 연계와 협약기관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교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용덕 건강타운 본부장은 "앞으로 광주청년센터와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선배시민과 후배시민의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세대통합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문정 청년 센터장은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빛고을타운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 및 정책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세대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산구 '천원한끼' 후원

광주 광산구는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가 지난 1일 광산구 '우리동네 천원한끼'에 5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사진)

후원한 금액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광주전남영업센터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마련했다.

후원금은 '우리동네 천원한끼' 식당 운영비, 식재료비 등을 지원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식당 이용자 중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확인되면 생계·의료

등 긴급 지원에도 사용할 계획이다.

한편 광산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연계해 어려운 이웃에 저렴한 가격에 점심을 제공하는 '천원한끼' 식당(우산1호점, 도산2호점)과 각 동에서 마을 공동체가 주도해 어려운 이웃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공동체 식당(△송정1동 '천원밥상' △침단1동 '선한식당' △침단2동 '진짜밥상' △송정2동 '송2송2 밥상친구')을 '우리동네 천원한끼'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김상철 기자

'낮밤녀' 종영... 이정은·정은지·최진혁 "행복했다"

JTBC 토일드라마 '낮과 밤이 다른 그녀' (이하 '낮밤녀')의 이정은(임순역), 정은지(이미진 역), 최진혁(계지웅 역)이 종영 소감을 밝혔다.

이정은은 어느 날 별안간 20대에서 50대에서 변해버린 인물 임순을 통해 스펙트럼이 넓은 연기를 선보였다. 무엇보다 시니어 인턴에 선발된 후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모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임순의 의욕과 열정 가득한 모습은 많은 이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했다.

이정은은 "한 장면 한 장면마다 '어떤 즐거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스텝들과 협업한 현장이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어 참 보람 있었다"고 밝혔다.

정은지는 8년째 취업 준비 중인 이미진 역을 맡아 청춘의 희로애락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 스틸 넘치는 이종생 활부터 계지웅과의 알콩달콩한 로맨스

까지 캐릭터의 면면을 입체적으로 표현, 톡톡 튀는 즐거움을 안겨줬다.

정은지는 "처음에는 미진이 가진 삶의 속도가 저와는 다른 것 같아 '미진이는 왜 이렇게 모든 걸 망설이고 겁낼까?' 물음표가 많이 붙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진의 속도도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미진과 같은 속도를 가진 모든 분들을 응원한다"고 했다.

최진혁은 검사 계지웅 역으로 분해 서한시 연쇄살인 사건을 파헤치는 것은 물론, 사랑에 빠지게 된 남자의 감정을 보여줬다. 사건을 향한 집요한 집념과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한데 어우러진 열연이 이목을 끌었다. 최진혁은 "연기 인생 중에 제일 분위기가 좋았던 현장이었고 감동됨을 비롯해 모든 스텝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뉴시스



남부경찰, 봉선동서 가시적 예방순찰

4일 광주 남부경찰은 지난 1일 오후 10시께 남구 봉선동 쌍용사거리·우체국사거리·광주은행사거리 일대를 경찰관기동대, 봉선1동자율방범대 등 총 40여명이 참여해 예방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순찰은 청소년 여름방학 기간 중 봉선동 학원가 일대에서 이륜차(오토바이·PM) 등 소란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과 치안 문제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한 범죄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박찬 기자



북부경찰, 야외 물놀이장 안전점검 실시

광주 북부경찰은 지난 1일 북구 관내 야외물놀이장 2곳에 대해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날 점검팀은 북구가 운영하는 산동고 친수공원과 동강대운동장에 설치된 물놀이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응 방법 숙지 여부, 안전요원 배치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 안전요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등 적발 시 조치 요령 등을 교육하는 등 여름철 물놀이장에서 발생빈도가 높은 성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도 병행했다.

윤준명 기자



서부소방, 벌 쏘임 주의 당부 나서

광주 서부소방서는 최근 벌집을 제거해 달라는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벌 쏘임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사진)

4일 광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광주 서구 지역 벌집제거 출동 건수는 총 266건으로 집계됐다. 벌집 제거를 요청이 늘고 있는 배경에는 폭풍 쪼는 무더위가 원인이다. 더운 날씨와 폭염이 지속되면서 높은 기온에서 벌의 번식이 왕성해져서다.

특히 말벌은 도심 속 주택가를 번식지로 삼아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집들이 생겨난다. 이때 벌집을 발견하면 선불리 제거하거나 벌을 자극하지 말고 움직임을 작게 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에 신고하면 된다.

광주 서부소방서 관계자는 "벌집을 건들었을 땐 벌을 쫓아내기보다는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해야 한다"며 "만약 벌에 쏘였다면 신용카드 등으로 피부를 긁어 벌집을 제거한 후 쏘인 부위에 얼음 찜질을 하면 통증과 가려움증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상이 기자



남부소방, 119시민수상구조대 방문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3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범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수상구조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남구 승촌보 일대를 방문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번 방문은 시민수상구조대 인력과 장비 배치 현황 및 위험요소 등을 확인하고 119시민수상구조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수난구조 및 응급처치법 등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시민 또는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돼 오는 8월 말까지 승촌보 일대에서 수난사고 예찰 활동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인명구조와 응급처치 등 피서객의 안전을 책임진다.

이영호 119재난대응단장은 "우리 지역의 안전한 여름철 나기를 위해 힘쓰고 있는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유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BTS 지민, 솔로곡 라이브 클립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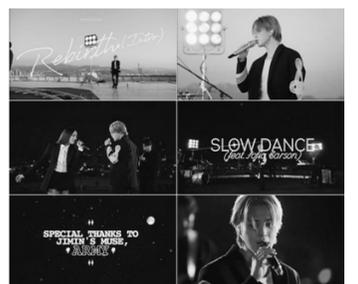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라이브 밴드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보였다.

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은 이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솔로 2집 '뮤즈(MUSE)'의 '리버스(인트로)'(Rebirth (Intro))와 '슬로우 댄스(Slow Dance)'(feat. Sofia Carson)의 라이브 클립(사진)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서울 시내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촬영됐다.

지민은 두 곡이 갖고 있는 청량하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탁 트인 전경과 하늘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야외에서 라이브 밴드와 함께 공연을 펼쳤다.

지민은 각 곡의 촬영 시간대를 달리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 깊어지는 감정을 표현했다. 먼저 사랑에 빠진 순간의 설렘을 다룬 '리버스(인트로)' 라이브는 노을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했다. '넌 나의 어둠 속 라이트(light)/라이크(Like) 태양이 비추는 바이브



(vibe)/ 살며시 번져가 라는 가사와 주황빛으로 물드는 하늘이 아름답게 어우러졌다.

이어 지민은 도시의 야경을 배경 삼아 '슬로우 댄스(feat. Sofia Carson)'를 가창했다. 반짝이는 불빛과 사랑이 깊어지는 순간을 그린 노랫말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특히 이 곡의 피쳐링을 맡은 미국 가수 겸 배우 소피아 카슨이 영상에 깜짝 등장했다. 지민의 매혹적인 고음과 소피아 카슨의 허스키한 음색, 라이브 밴드의 풍성한 연주와 빛나는 야경이 어우러져 영화 같은 장면을 완성했다. 뉴시스